

	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) 보도자료 http://www.gist.ac.kr	
	지스트 홈페이지 게시	
보도 시점	2020.08.25.(화)	
배포일	2020.08.25.(화)	
보도자료 담당	홍보팀 김효정 팀장	062-715-2061
	홍보팀 이나영 선임행정원	062-715-2062

지구·환경공학부 졸업생 정태용 박사,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조교수 임용

- 향후 오믹스 기술을 활용한 수질 모니터링 연구 지속하며 해당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힘쓸 것

- 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 지구·환경공학부를 졸업한 정태용 박사(지도교수 김상돈, 2016년 8월 졸업)가 올해 9월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환경학과 조교수로 부임한다.
 - 정태용 박사는 환경독성화학연구실(ETCL) 출신으로 김상돈 교수님의 지도 아래 2010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석사와 박사학위 과정을 마쳤다. 대학원 학위기간 동안 동물 플랑크톤을 활용한 수질 모니터링과 유해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.
- 지스트 대학원 졸업 후에는 2017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토론토대학(University of Toronto)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3년간 재직하였다. 박사후 연구원 기간 중, 플랑크톤의 생물분자 변화를 활용한 수질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며 오믹스(Omics) * 기술의 실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.

*오믹스(Omics): 특정 학문 분야를 말하기보다는 개별 유전자(gene), 전사물(transcript), 단백질(protein), 대사물(metabolite) 연구에 대비되는 총체적인 개념의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하는 생물학 분야

- 정박사의 연구결과는 2019년 토론토대학 연구뉴스로 출간되며 (<https://www.utoronto.ca/news/u-t-researchers-develop-early-warning-system>)

-water-pollution-using-tiny-water-fleas) 우수성을 인정받았다. 또한 2020년 미국 오클라호마대학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제안하여 캐나다의 미택스(Mitacs: 캐나다 정부 산하 과학기술 지원기관)로부터 연구비 지원 대상(Globalink Research Award)으로 선정되기도 했다.

- 정태용 박사는 “향후 오믹스 기술을 활용한 수질 모니터링 연구를 지속하며 해당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힘을 쏟겠다” 며 “연구실 수준의 연구에서 머물지 않고 지표수와 근연안에서 적용이 가능한 실용도 높은 생물분자 모니터링 기법을 개발하고 싶다” 고 말했다. <끝>

[사진설명]



▲ 지스트 지구·환경공학부 졸업생 정태용 박사